

# 연인이랑 ... 가족이랑 ... 시네마 천국으로



설날은 극장가 최대 대목 중 하나. 하지만 올 설날에는 눈길을 끄는 작품이 별로 없어 흥행작을 점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 영화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설날을 맞아 개봉하는 영화가 한편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과속 스캔들'과 '쌍화점'이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가 관심사다.

### 적벽대전2-최후의 결전

1편이 개봉된지 6개월만에 나온 속편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국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적벽대전'이 등장한다. 적벽을 차지하려는 조조 군과 맞서야 하는 손권과 유비 연합군은 분주히 움직이며 대사를 도모한다. 제갈량은 지략을 발휘해 조조 진영에서 10만개의 화살을 구해오고 주유는 교묘한 심리전을 통해 조조의 최고 장수인 채도와 장윤을 죽게 한다. 유명한 화공전이 스크린에 재현되는 조조와 연합군의 치열한 싸움은 40여분에 걸쳐 진행되며 할리우드 영화 못지 않은 스펙터클의 향연을 보여준다. 지장(智將)의 면모를 보인 주유 역의 양조위를 비롯해 제갈량 역의 금성무, 장천 등 호화캐스팅이 관객들에게 영화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 유감스러운 도시

흥행 대박을 터트렸던 '투사부일체' 출연진이 다시 의기투합해 제작한 조폭 코미디로 양조위 유덕화 주연의 '무간도' 패러디 버전이다. 성격이 불같은 강직한 성격의 교통 경찰 장충동은 얼굴이 덜 알려졌다는 이유로 한강 파이낸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폭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돼 조폭으로 위장 잠입한다. 양광섭이 이끄는 조폭들 역시 비밀 조직원 이중대를 경찰로 둔갑시켜 정보를 캐내려 한다. 부처님 손바닥 보듯 환한 조직을 소탕하며 특수수사팀에 합류한 이중대는 정보를 빼내기 시작하고, 장충동 역시 뛰어난 활약으로 양광섭의 눈에 들기 시작하지만 일은 이상하게 꼬여간다. 정준호·정운택·정운택 등 '정트리오'가 주연을 맡았으며 참고원과 김상중, 박상민·선우재덕·윤해영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이상 관람가>

### 체인질링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불합리한 경찰과 맞서 싸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무엇보다 이제는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작품이라는 사실이 기대감을 높이는 영화다. 여기에 이전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안젤리나 졸리와 연기파 배우 존 말코비치가가 가세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의 배경은 1928년의 로스앤젤레스. 회사에서 돌아온 싱글맘 크리스틴은 아홉살 난 아들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만 아들을 찾지 못한 다. 5개월 뒤 경찰은 아

들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 아이를 데려와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이 때부터 크리스틴과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 사이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18세 이상 관람가>

### 과속 스캔들

무서운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따뜻한 가족영화로 설 연휴 기간 동안 700만명을 넘어설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아이돌 스타 출신 라디오 DJ 현수에게 어느날 스물두 살된 딸이 나타난다. 고교 시절 단 한번의 실수로 태어난 딸 역시 고등학생 때 사고를 쳐 여섯살 짜리 아들을 두고 있는 상태. 현수는 스캔들에 휩싸일까 진전 금근하는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앞둔 여배우 박보영의 상큼한 연기와 영화의 일등공신인 아역배우 왕석현, 딱 짝 붙어 있는 옷을 입은 차태현의 연기가 어우러져 볼 만한 가족영화를 만들어냈다. <12세 이상 관람가>

### 쌍화점

18세 이상 관람가. 동성애 소재라는 약점을 딛고 3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는 작품이다. 격정의 고려말, 친위부대 건봉위의 수장 홍림은 대내외적 위기에 놓인 공민왕을 보필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후사문제를 빌미로 왕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고,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왕의 목숨을 위협하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왕은 홍림에게 왕후와의 대리 합궁을 명한다. '결혼은 미친 것이다', '비열한 거리', '말죽거리 잔혹사'로 총무로써 자리잡은 유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조인성과 주진모 두 꽃미남 배우가 이룰 수 없는 아찔한 사랑을 연기하며 송지효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작품 흥행에는 강도 높은 베드신도 한몫했다. <18세 이상 관람가>

그밖에 뉴욕 동물원 4인방의 아프리카 탐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마다 사스가 2'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 일본 애니메이션 '버람위의 포뇨'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작전명 발키리

독일 군부의 비밀 세력이 히틀러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였던 '발키리 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로 톱 스타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조국 독일에 충성을 맹세한 슈타펜버그 대령은 독재자 히틀러가 유럽을 제 2차 세계대전의 공포로 몰아가자 히틀러와 나치 정부에 분노 한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부상으로 한쪽 눈과 팔을 잃고 베를린에 돌아온 대령은 히틀러와 핵심 인물들까지 한꺼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결국 독일 군대 최고위층 내 비밀 저항 세력에 가담,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한다. '엑스맨', '유주얼 서스펙트'를 만든 브라이언 싱어 감독 작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 베드타임 스토리

항상 꿈꾸는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 가족 코미디물. 호텔 매니저가 꿈인 스키터는 호텔에서 전구를 갈아끼우는 일을 하는 평범한 남자. 하지만 어느 날 조카를 재우려고 들려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스키터는 자신의 능력을 심분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야기 속에서 농부가 돼 성주 자리를 놓고 기사 켄달과 결투를 하게 된 스키터는 현실 속에서 호텔 경영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자 매일 밤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만든다-. 코미디 연기에 일가견이 있는 아담 샌들러가 주연을 맡아 1인 다역을 선보인다. 고대 콜트세움, 마녀와 인어공주, 요정 등이 등장하고 광활한 우주세계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등 '꿈 꾸는 모든 것'이 화면에 등장한다. <전체 관람가>

작전명 발키리



베드타임 스토리



적벽대전2-최후의 결전



체인질링



쌍화점